

#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가페' 영성의 목회상담학적 적용에 대한 고찰

김태수 교수

(D.Min., 백석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영성을 목회 상담학에 접목시켜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가운데 특히 4장에 등장하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의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돌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요한복음의 경우,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2절로 국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예수의 '아가페' 영성을 상담에 필요한 5가지 주제들과 접목시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한계점은 예수의 영성에 관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과 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예수의 영성에 관심을 갖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분의 영성을 연구하고 통찰을 얻은 후, 상담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이론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중심단어 : 아가페 상담, 돌봄, 목회상담, 경청, 화해

## I. 여는 글

현대의 시대적 특징은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이다. 오늘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치고, 그 중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다루는 서적들은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다. 현대인들의 질병의 대다수는 심인성(心因性) 질환이라고 한다. 즉, 마음의 문제가 육체적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심인성 질환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아가페’ 사랑의 영성을 가지셨던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story)를 통하여 목회상담과의 접촉점을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영성을 목회상담에 적용시키면서, 필자는 상담과 관련된 5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았다. 그 주제들은 아가페(agape)의 영어 두자어(頭字語)를 활용하였는데,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하나님의 말씀(God's words), 아가페 사랑의 기술(art of agape love), 하나님과 내담자의 화해(person's reconciliation with God), 그리고 공감(empathy)이다.

## II. 펴는 글

### 1. 요한복음에 대한 고찰

본고에서 필자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위치와 요한복음의 교회론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논문이 아니라, 교회라는 목회상담의 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일부분(예: 요한복음 4장)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 1) 요한복음의 신학적 위치

신약시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신약시대에서는 하나의 정통성을 가진 주된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면서 주변적인 공동체가 산발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가 다양성 속에 서로 공존하고 협조하며, 때로는 긴장 관계를 이루며 초기 기독교회를 발전시켜 나아갔다.<sup>1)</sup> 성서에 나타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 제자라고 볼 수 있다. 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종말론적이며, 스승인 예수처럼 살려는 모방의 원리가 강조된 공동체였다.<sup>2)</sup> 그래서 폐쇄적이지 않았으며,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문호를 열어준 열린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오순절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열정적이나, 종말론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여러 직제와 기구를 갖추어 발전해 갔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각지로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때 만들어진 공동체 중의 하나가 요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는 철저하게 AD 1세기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sup>3)</sup>

그런데 이렇게 다양화된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교회가 직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직제는 철저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직제는 사도라는 직제 보다는 제자라는 직제이다. 물론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직제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제자를 강조하고 있다.<sup>4)</sup> 더욱이 놀라운 점은 요한에게 남성과 여성은 차이일 뿐 직제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각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선교의 직제를 감당하였다.<sup>5)</sup> 그리고 요한 공동체에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으며, 이러한 관계는 성령의 체험으로 완성되었다.<sup>6)</sup> 신앙의 조직적 등급보다는 사랑의 등급이 요한 공동체가 가진 유일한 계급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2) 요한복음의 교회론

요한복음에 나타난 교회는 대부분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자

면, 목자비유<sup>7)</sup>와 포도나무 비유<sup>8)</sup> 등이다. 이 비유들은 대부분 기독교론적이고 교회론적이다. 특히 예수의 어법 중 “나는 …… 이다”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같이” 같은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위치와 교회를 향한 예수의 지위도 살펴볼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요청이다. 즉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예수의 유대가 중요한 하나의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 17:20-23에 나타난 교회는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에 있다.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의미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구성원의 일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부활한 이후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모두 제자가 되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설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모두 서로 친구이며,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교회의 교직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교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한은 특권층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평등한 교직의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교회가 성령의 활동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한 이해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요한복음의 교회는 성령의 이해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교회 중심적이기 때문이다.<sup>9)</sup>

요한복음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를 대신해서 보혜사가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는 공동체이다. 요한복음에서 교회는 보혜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성령은 분명 교회 태동의 힘이며 이러한 힘은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자리가 되었다. 이것은 초기 요한 공동체 교회가 분명히 성령 체험에 의존한 성령 공동체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요한 공동체는 성령이 내주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본질을 발견한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항상 복수로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앙 공동체에 의존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를 수용하느

나 아니면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용어들, 위로부터 태어난 자<sup>10)</sup> 아브라함의 씨<sup>11)</sup> 그리고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sup>12)</sup> 등등의 표현으로 강조되며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언급에서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의 교회론은 엄격한 그리스도 중심적 공동체이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들, 목자나, 포도나무 등은 예수를 상징하는 비유들이다. 이러한 비유는 교회가 철저히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특징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형상화되며, 관계론적으로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 즉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이 둘은 교회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제에 있어서 요한은 철저히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열두 제자의 의미보다는 제자라는 의미를 강조하며,<sup>13)</sup> 사도라는 흔한 호칭도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요한의 의도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써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한 공동체는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특한 공동체적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요한만의 독특한 이해에 기초한 교회 운동은 초기 기독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고, 사도적 전통에 기초하여 요한 공동체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원했던 독특한 공동체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다.<sup>14)</sup>

## 2. 예수의 영성: 아가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하여 언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영성은 치유(healing), 가르침(teaching) 그리고 설교(preaching)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가페 사랑(agape love)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 1) 아가페의 정의

'아가페' (agape)는 에로스(eros)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

의 사랑과 같은 신적(神的) 차원의 사랑이며 가장 고차원적 사랑이다. 즉, 무조건적 사랑, 헌신적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과 관련하여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4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sup>15)</sup>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타적(利他的)으로, 희생적으로, 이해심을 가지고 그리고 용서함으로 사랑하셨다.

사랑을 표현할 때, 다양한 유형의 사랑이 존재한다.<sup>16)</sup> 첫째, 에로스(Eros)의 사랑이다. 에로스는 주로 상대방의 외모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사랑이다. 때문에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닌다. 둘째, 루더스(Ludus)의 사랑이다. 이것은 유희적 사랑으로써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을 매어놓지 않고 상대방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셋째, 스토르게(Storge)의 사랑이다. 이 유형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서서히 발전하는 애정의 결과로 생긴 사랑이다. 넷째, 마니아(Mania)의 사랑이다. 이것은 강렬한 낭만적 사랑으로써 질투가 많고 상대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몰두하게 된다. 다섯째, 프라그마(Fragma)의 사랑이다. 이 유형은 합리적 사랑으로써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육, 종교, 직업과 같은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람을 찾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2) 아가페의 특성

아가페 사랑의 특징과 관련하여 니그렌(Anders Nygren) 스웨덴 감독(스웨덴 교회의 신학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룬트(Lund) 학파의 학자)은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sup>17)</sup>

첫째, 아가페는 자발적(spontaneous)이며 비(非)동기적(unmotivated)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동기로 제시될 수 있을만한 어떤 것도 인간 안에서 추구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기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신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며 비동기적 본성을 드러낸다.

둘째, 아가페는 가치(價値)에 치우치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가치판단

(valuation) 개념도 하나님의 교제와 관련하여 용납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향한다면 그 입장은 분명하고, 가치판단에 대한 생각은 배제된다.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격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차원의 사랑이다(마 5:45).

셋째, 아가페는 창조적이다. 아가페는 신적인(divine) 사랑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인 창조성에 참여한다. 아가페는 창조적 사랑이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대상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됨으로써 가치를 얻는다. 아가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가치를 창조한다. 아가페는 사랑하며 사랑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한다. 아가페는 가치를 창조하는 원칙이며, 이것은 아가페 개념의 가장 심오하고 궁극적인 특징이다.

넷째,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일으킨다. 아가페는 기독교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또한 아가페는 그 창조적 본성에 힘입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교제를 수립하는 주도권은 신적인 아가페에 놓여 있다.

### 3. 아가페 영성과 돌봄

우선 돌봄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면, 돌봄을 뜻하는 영어 단어 'care'는 그리스어 'kara'에서 유래하였다. 돌봄의 주제와 관련하여 간호학자인 김수지는 돌봄의 구체적 행위를 10가지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는 것처럼, 상담자도 내담자를 정성껏 상담하여 치유하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주장하는 구체적 돌봄의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sup>18)</sup> 첫째, 알아봐 주는 것(noticing)이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식해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동참하는 것(participating)이다. 동참함이란 상대방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함께 일상생활 중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나누는 것(sharing)이다. 나눔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 지식, 정보와 같은 소중한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선한 행위이다. 넷째,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이다. 적극적 경청은 자신의 온 마음과 몸으로 정성껏 상대방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행위이다. 다섯째, 칭찬해 주는 것(complimenting)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훌륭한 점을 인정해 주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여섯째, 동행해 주는 것(accompanying)이다. 일곱째, 안위해 주는 것(comforting)이다. 안위해 주는 것이란 상대방의 편이 되어 그가 느끼는 슬픔이나 아픔을 이해해 주고 공감함으로써 상대방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행위이다. 여덟째,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것(hoping)이다. 아홉째, 용서 받고 도한 용서해 주는 것(forgiving)이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으며 진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관용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수용하는 것(accepting)이다. 여기서 수용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돌봄이라는 주제를 요한복음 4장에 적용시켜 본다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돌보셨으며 3가지 차원에서 전인적 돌봄의 차원을 보여주셨다. 첫째, 육신적 돌봄(physical care)의 차원이다. 예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당면한 육신적, 환경적 측면을 다루신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수분의 섭취이다. 인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유지에 절대적인 피도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햇살이 따가운 대낮에 그것도 매일 물을 길러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다(4:15). 따라서 예수께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육신적 목마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

둘째, 정신적 돌봄(mental care)의 차원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명의 남편과 결혼을 했던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다.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한 남자가 4명의 여인들을 합법적 신부로 맞아들여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남성-중심적이다. 한 남자가 5명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남성-중심적 문화의 국가에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반대로 한 여인이 5명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내면적 문제를 다루심으로써 여인이 정신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도록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해 주셨다.

셋째,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의 차원이다. 수가성의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예수께 질문을 하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한다고 주장했고, 이방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자세는 신령과 진정으로(in spirit and in truth)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배의 장소와 같은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내면적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 4. 아가페 영성의 목회상담학적 적용

이 연구에서는 아가페 영성을 목회상담에 적용함에 있어서, 아가페(agape)라는 영어단어의 두자어(頭字語, acronym)를 활용하여 목회상담에 필요한 5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 1)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 (1) 경청의 중요성

경청(傾聽)은 상담에 있어서 기본적인 듣는 기술(技術)이다. 경청은 단순한 청취(聽取)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향한 적극적 관심과 지지의 표현으로써 듣는 기술이다. 따라서 청취(hearing)와 경청(listening)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경청의 정의를 언급할 때, 볼톤(Robert Bolton)은 경청이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에게 관심(involve)을 갖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한다.<sup>19)</sup> 또한, 그는 경청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는 데, 경

청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듣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경청 능력은 우정, 가족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경청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켐프(Charles F. Kemp)는 오랜 기간 목회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그의 지침서에서 목회상담의 다양한 기술들 가운데 경청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의 저서(*A Pastoral Counseling Guidebook*)에서 다루는 목회상담의 기술들은 첫째 경청, 둘째 감정의 반영, 셋째 질문, 넷째 해석, 다섯째 확신과 지원, 여섯째 대결과 권고, 일곱째 종교적 자원이다.<sup>20)</sup>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상담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이건(Gerard Egan)은 5가지 항목을 언급하고 있다.<sup>21)</sup> 첫째, 내담자를 정중하게 똑바로 마주 대하라. 둘째, 개방된 자세를 취하라. 셋째, 내담자를 향하여 상담자는 몸을 기울이라. 넷째, 내담자와 적절한 눈의 접촉을 유지하라. 다섯째, 내담자를 대할 때 상담자는 자신의 긴장을 완화시켜라.

## (2) 경청의 종류

① 반영적(reflective) 경청: 반영적 경청에서 반영은 감정의 영역, 태도의 영역, 그리고 내용의 영역이라는 3가지 요소를 내포한다.<sup>22)</sup>

첫째, 감정의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때 그때 반영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또는 “너무 슬픈 말씀이군요.”와 같이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태도의 반영은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비(非)언어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읽고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짓는군요.” 또는 “주먹을 꼭 쥐 그 이유를 알만 하네요.”와 같이 내담자의 무언의 표현들을 반영해 줄 수 있다. 셋째, 내용의 반영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상담자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원적(supportive) 경청: 상담에서 지원적 경청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내담자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지원해 주는 경청기법이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상담자가 항상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어나 혹은 비언어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sup>23)</sup>

③ 비언어적(non-verbal) 메시지의 경청: 메라비안(Mehrabian)은 실험을 통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24)</sup> 전체 표현 중에서 말로 좋아하는 표현(verbal liking)을 한 사람은 7%, 목소리로 좋아하는 표현(vocal liking)을 한 사람은 38%, 그리고 얼굴표정으로 좋아하는 것(facial liking)을 표현한 사람은 55%라는 통계자료가 제시되었다.

## 2) 하나님의 말씀(God's words)

### (1) 하나님 말씀의 능력

예수께서는 상담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처방을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남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골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히 4:12). 본고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전수되고 구약과 신약으로 채택된 66권의 정경(正經)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인간을 치유한다(시 107:20). 둘째,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한다(시 119:130). 셋째,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한다(요 8:32). 넷째,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약 1:18).

###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성경의 내용을 찾아본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시 119:161).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수용한다(행 11:1).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벧전 3:1).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약 1:22).

### (3) 하나님 말씀의 교육적 요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은 최상(最上)의 교재이다. 성경은 최고의 교육 교재로써 손색이 없음을 『트리니티 말씀대전』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sup>25)</sup> 성경은 거짓을 드러내고 악행을 고발하는 목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최악 된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든 성경을 통하여 잘못된 심성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교재이다.

둘째, 삶의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영감(靈感)이 함축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은 상담자나 내담자의 삶의 문제에 적용시킬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줄 수 있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 3) 아가페 사랑의 기술(Art of agape love)

프롬(Erich Fromm)은 사랑도 일종의 기술(art)이라고 주장한다.<sup>26)</sup> 그는 '사랑은 기술인가?' 라는 구체적 질문을 하면서, 사랑이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knowledge)과 노력(effort)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필자는 사랑이 하나의 즐거운 감정(感情)이지만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사랑의 기술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지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술(技術)일 수도 하다. 프롬은 사랑을 기술(art)이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사랑의 기술적 측면을 주장하지만, 다수의 현대인들은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는다. 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문제,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되는가의 문제도 된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2가지 부분이 있다. 하나는 이론의 습득(the mastery of the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실습의 숙달(the mastery of the practice)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가 의술에 숙달에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론적 지식과 실습의 성과가 그의 직관 속에 하나로 융합될 때까지 많은 반복된 훈련을 경험함으로써 의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둘째, 아가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인내의 기술이 필요하다. 최고 수준의 학자였던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아가페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랑

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 모습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실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는 것이다. 이 내용들에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아가페 사랑의 기본 속성은 인내(忍耐)이다.

셋째, 아가페는 무조건적(無條件的) 사랑, 타아(他我)중심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中心的) 사랑이며 아가페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담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예를 들어, 인간사회에서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사치적(approximate) 사랑을 찾아보라면 그것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일 것이다. ‘어머니’라는 명칭은 자식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내포하여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식에게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요 그리움이다. 자식을 향하는 어머니의 애정 어린 말과 행동처럼 상담자는 내담자를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담해 주어야 한다.

#### 4) 하나님과 내담자(인간)의 화해(Person's reconciliation with God)

##### (1)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

성경에서 언급하는 화해의 중요한 측면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종적인 화해이다. 성경은 모든 죄, 즉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공동체적 연합성이 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의 분노를 가지고 마주서 계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열방 공동체는 그들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교환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종적인 화해를 가져올 때까지 관계의 파괴와 파괴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과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간은 그의 전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으며,<sup>27)</sup> 사울의 살인죄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교수형으로 내어주었다.<sup>28)</sup> 이것은 개인의 형벌이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적인 화해의 과정이며 섭리이

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의 피만이 잘못을 속죄하고, 하나님과 민족 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를 가져온다고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sup>29)</sup>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분열된 세상에, 분열된 사람들의 마음에 화해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화해와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화해는 단순한 종교적인 규례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목표이며 하나님과의 화해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해를 통한 자아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 볼 수 있다.

## (2) 인간관계의 수평적 화해

우선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화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야곱은 귀향할 때에 자신과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으로 큰 양금이 남아있는 형인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이 미리 보낸 선물로 개인적 화해를 시도한다.<sup>30)</sup>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권면자로서 격노한 왕을 화해시킬 수 있다고 말함으로서 화해의 공동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sup>31)</sup> 그러나 인간의 간음 같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를 해선 안 된다고 화해의 영역을 제한하기도 하고 있다.<sup>32)</sup>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할 것을 요청하는 선(先) 화해 후(後) 경배라는 원칙을 세우시며 횡적인 화해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셨다.<sup>33)</sup> 바울은 화해의 의미를 부부간의 화합과 화목에도 접목시켜 사용함으로서 화해의 개인적이며 내적인 기능과 역할을 크게 강조하기도 하였다.<sup>34)</sup>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횡적인 화해는 죄나 혹은 파괴적인 성품, 이기적 성품 때문에 파괴된 인간 공동체의 회복과 관계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종적인 화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 5) 공감(Empathy)

### (1) 공감의 정의

그리스어 *empathia*는 en+pathos의 합성어으로써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공감을 의미하는 단

어 'empathy' 가 유래한다. 공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감이란 내담자의 상황, 감정 그리고 동기에 동질의식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공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로저스(Carl R. Rogers)에게 있어서 공감이란 “만약(as if)이라는 내용을 지탱하면서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35)</sup> 목회상담학자인 켐프(Charles F. Kemp)에 따르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면적 참조의 틀 속으로 들어가려는 상담자의 사고로써 안쓰러워하는 것(sorry for)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6)</sup>

## (2) 공감의 내용

Robert R. Carchuff는 공감이란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 이요 기술이기 때문에, 다음의 3가지 내용에 대하여 공감적 반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7)</sup>

① 내용(內容)에 대한 공감이다. 내담자가 언급하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공감은 내담자의 경험 속에 있는 결정적 요인들을 명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의 말은 ……” 또는 “바꾸어 말한다면 ……”와 같은 표현으로 내담자가 언급한 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였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6하 원칙(when, where, who, what, why, how)이 포함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감정(感情)에 대한 공감이다. 이것은 내용에 대한 공감의 후속행동으로써, 내담자의 내면세계와 관계되는 정서적 경험을 다루는 중요한 기법이다. 효과적으로 감정에 공감하려면 3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담자의 행동을 잘 관찰해야 한다. 둘째, 내담자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주의 깊게 듣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예상해 보아야 한다. 셋째, 상담자가 관찰한 감정표현과 그 내용이 내담자의 경우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느끼기에는 ……”와 같은 유형의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감정의 공감에서 반응하기 난감한 점은 내담자의 감정이 폭발해서 과격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당신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하셨군요.” 또는 “지금 당신은 감정의 고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군요.”와 같이 반응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감정을 천천히 식혀줄 수 있다.

③ 의미(意味)에 대한 공감이다. 이 공감은 내용에 대한 공감과 감정에 대한 공감에 대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의미에 대한 공감은 내용과 감정 속에 담긴 이유(理由)를 파악할 때 전달된다. 효과적으로 의미에 대한 공감을 하려면, 먼저 내담자의 말을 동일한 의미가 드러나게 다른 말로 바꾸어 내용을 요약해 주고, 그 다음은 표현된 감정을 언급하며 그리고 이유를 말해 준다. 따라서 완전한 공감은 내용과 감정 그리고 의미의 3가지 항목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감정에 대한 공감은 다른 항목들보다 중요한 핵심항목이 되므로 된다.

### (3) 공감의 방법

공감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건(Egan)은 기초적 차원의 공감을 8가지 방법으로 요약하여 정리해 준다.<sup>39)</sup>

첫째,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내담자로부터 전달된 메시지에 주의 깊게 집중하라.

둘째, 특별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경청하라.

셋째, 이런 핵심적 메시지에 대하여 자주 그리고 간략하게, 편견을 갖지 말고 반응하면서도 내담자가(긍정, 부인, 설명, 명료화,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탐구적인 자세를 취하라.

넷째, 부드러우면서도 내담자가 중요한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다섯째, 다른 것을 강조할 어떤 구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정과 내용에 대하여 반응하라.

여섯째, 천천히 중요한 화제와 감정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일곱째, 반응을 보낸 다음 당신의 반응의 정확성에 대해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에 관한 단서들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집중하라. 내담자가 초점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라.

여덟째, 내담자의 스트레스나 저항의 신호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당신의 정확성의 결핍에서 오는 것인지, 지나친 정확성에서 오는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라.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해 줄 때, 공감의 내용을 숙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

성이 있다.

### Ⅲ. 닫는 글

이상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가페 영성의 목회상담학적 접근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의 제목에 등장하는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하여 오늘날 하나의 독보적 개념으로 인정받는 개념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아가페 영성이라는 용어가 더욱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더욱이 예수(그리스도)의 영성을 묘사한다는 것은 필자에게 대단히 난해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필자가 예수 그리스도 수준의 영성에 도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논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심오한 연구로 이 논문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이런 한계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적 예수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영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존재하는데 반하여, 바울보다 더욱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대한 연구 자료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성에 관심이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하여 연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치유, 가르침 그리고 설교를 예수의 영성의 관점에서 연구해 본다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상담과 연결시킨다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복음 안에서 풀어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현.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0.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참말, 1993.
- 김영진. 『심리학 역사 속에서의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김태수. 『아가페 상담학』. 서울: CLC, 2007.
-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1994.
- 시사영어사 편집국. 『사랑의 기술』. 서울: 시사영어사, 2006.
- 이기춘 외. 『목회임상교육』. 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 출판부, 1998.
- 이장호.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5.
- 전요섭.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나무, 2001.
-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 Adams, J. E. *Competent to Counsel*.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0.
- Barclay, W. *The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 Bolton, R. *People Skills*.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79.
- Buchanan, D. *The Counseling of Jesu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5..
- Egan, G. *The Skilled Helper*. Pacific Grove: Brooks/Cole, 2002.
-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Texas: Word, 1983.
- Kemp, C. F. *A Pastoral Counseling Guidebook*.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 Nygren, A. *Agape and Eros*. London: S. P. C. K, 1954.
- Rogers, C. R.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1.

---

**【후주】**

- 1) 행 6:1.
- 2) 막 1:17, 2:14, 10:21; 눅 9:57~62.
- 3) 김문경, 『요한신학』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4), 154-166.
- 4) 요 6:66.

- 5) 요 4:7-11, 11:1-44, 19:25, 20:1-2, 11-18.
- 6) 요일 2:20, 27.
- 7) 요 10:1-18.
- 8) 요 15:1-17.
- 9) 김득중, 『신약성서개론』 (서울: 킨콜디아사, 1993), 129-145.
- 10) 요 3:3.
- 11) 요 8:33.
- 12) 요 11:52.
- 13) 요 6:67, 70, 71; 20:24.
- 14) 박호용, 『요한복음서 재발견』 (서울: 쿰란출판사, 2007), 25-44.
- 15)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150-51.
- 16) 권석만,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7), 256.
- 17)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78-83.
- 18) 간호학자인 김수지는 2008년 10월 11일 국방대학교 안보대강당에서 경찰청, 제2 작전사령부, 그리고 한국 상담 전문가 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제 7회 전국 상담 전문가 교육대회에서 구체적 돌봄의 행위 10가지를 소개하였다.
- 19) Robert Bolton, *People Skills*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79), 48.
- 20) Charles F. Kemp, *A Pastoral Counseling Guidebook*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48-49.
- 21)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오성춘 역, 『상담의 실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2), 91-92.
- 22) 이기춘 외, 『목회임상교육』 (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 출판부, 1998), 74-77.
- 23) 이기춘 외, 83.
- 24)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75), 68.
- 25) 트리니티 말씀대전 편찬위원회,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 27권, (서울: 바라서적, 1992), 257.
- 26)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시사영어사 편집국, 『사랑의 기술』 (서울: 시사영

- 어사, 2006), 7.
- 27) 수 7장.
- 28) 삼하 21장.
- 29) 민 35:33.
- 30) 창 32:21.
- 31) 잠 16:14.
- 32) 잠 6:34f.
- 33) 마 5:24.
- 34) 고전 7:11. 여기서 바울은 특히 '화해하다' 라는 단어인 *καταλλάσσω* 를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하였다.
- 35) Carl R. Rogers,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1), 284.
- 36) Charles F. Kemp, 29.
- 37) 이기춘 외, 108-114.
- 38) Gerard Egan, 1975, 89.

**【Abstract】**

A Study of Pastoral Application to 'agape' Spirituality  
in the Gospel of John

Taeso Kim

(D.Min.,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nect 'agape' spirituality of Jesus in the gospel of John with pastoral counseling.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only John 4:1-42 because the writer cannot deal with all chapters of Joh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connect Jesus' 'agape' spirituality with five issues which is needed in pastoral counseling. The issues are as follows: Firstly, active listening. Second, God's words. Thirdly, art of 'agape' love. Fourth, person's reconciliation with God. Fifthly, empath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writer could not find any book concerning Jesus' 'agape' spirituality and also, the writer's spirituality could not reach that of Jesus. Because Jesus' spirituality is too high and great, the writer can not understand the highest level of Jesus' spirituality.

The writer hopes that lots of scholars make a study of Jesus' spirituality in the future and thus a lot of people, especially Christians, can deeply understand his true spirituality.

Key words : 'agape' love, care, pastoral counseling, listening, reconciliation